

Twelfth Night

— 이미지와 사랑 —

홍 기 창

사람은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의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매체로 사용하여 그 사물의 감각적 속성을 인식한다. 눈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이미지를 매개로 사물의 시각적 형상을 지각한다. 장님은 눈이 멀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의 시각적 형상을 보지 못한다. 장님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 자기 얼굴을 보려면 거울이나 물 속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다시 눈을 통해 그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 나르시서스의 신화는 이러한 시각적 인식의 메카니즘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이 사람은 물체에 대해서는 감각 기관을 통해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그 이미지를 매개로 그 물체의 감각적 속성을 인식하지만 사람의 정신은 감각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초감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오관을 통해서만 무엇이든 지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도 그것이 감각적 형식으로 표현될 때는 인식된다. 사람이 정신을 감각적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가지다. 몸을 사용하여 정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몸의 움직임은 정신의 이미지가 된다. 몸의 움직임을 보고 사람은 그 움직임에 반영된 그 사람의 정신,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물건을 만들어 사람은 그 속에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은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자기의 정신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주로 언어로 정신을 표현한다. 언어는 사람이 자신의 정신을 표현하는 주된 도구며 매체다.

시각적 이미지가 물질적, 육체적 존재의 형상을 반영한다면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정신을 반영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을 반영한다기 보다 “반향”(echo)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혀를 통해 소리로 자기 정신을 표현하고 귀를 통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담긴 뜻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은 주로 눈을 통해 외적 물질적 존재를 인식하는 반면 사람은 주로 귀를 통해 정신을 인식한다. 나르시서스(Narsissus)신화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인식을 다룬고 있다. 나르시서스는 자기 얼굴이 개울 물에 비친 영상을 보고 반하고 있다. 시각적 인식의 속성을 표현한 얘기다. 한편 에코(Echo)의 이야기는 혀로 말하고 귀로 듣는 인식의 속성을 다룬다. 에코는 자기 얘기만 떠벌이는데 대해 처벌을 받는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녀는 Juno신에게 벌을 받는다. 그녀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남의 말만 “반향” 해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사람이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반한 나르시서스의 자기애와 다른 또 하나의 자기애의 태도다. 에코적인 자기애는 자신의 정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다. 위에서 말한대로 사람은 정신을 말로 표현하는데,

자기 주장만하는 사람은 남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기 정신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가장 무서운 처벌은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것. 즉 자기생각은 말하지 못하고 남의 말만 반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에코에게 내린 쥬노여신의 처벌은 에코에게 내린 가장 무서운 처벌임을 알 수 있다. 자기 얼굴에 반해 나르시서스가 결국 말라 죽듯이 에코도 말라 죽고 만다. 다만 에코는 나르시서스를 사랑하다가 말라죽는다. 그녀는 나르시서스가 탄식하는 말만 반향하다가 죽고 만다.

자기 외모만을 사랑한 나르시서스와 자기 정신만을 사랑한 에코는 인간적 사랑의 두 모델이다. 나르시서적인 사랑은 시각적 외모에 반하는 짚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모델이고 에코적인 사랑은 정신적 이념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사랑에 대한 모델이다. 셰익스피어는 낭만적 사랑의 회극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다룬다. 짚은 남녀의 사랑이 시각적 외모에 반해 일어나는 사랑임을 전제한 것이다. 반면에 그는 비극적 사랑은 “귀를 통해 일어나는 사랑”으로 다룬다. 귀를 통해 일어나는 사랑은 짚은 남녀의 첫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중매 결혼을 할 때 남의 말을 듣고 결혼한다. 이때 중매쟁이는 결혼 상대의 가문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등을 중시한다. 귀를 통해 사랑하게 될 때는 주로 이해관계가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해득실이 동기가 되어 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랑을 셰익스피어는 귀를 통한 사랑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에 사랑 자체를 위해 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다루면서 그러한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있다. *Twelfth Night*에서 셰익스피어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랑을 각각 주구성과 부구성에서 극구성의 원리로 다룬다. 주구성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중심으로 극의 진행을 구성하고 부구성에서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부구성에서는 천한 신분의 시녀가 귀족과 결혼하게 되고 천한 신분의 집사(steward)가 자신이 모시는 여백작과 결혼하려는 망상에 빠진다. 에코적인 자만심에 빠져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히고 있다.

I

스페인의 철학자 Ortega Y Gasset는 “첫 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해 매우 흥미있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남자는 가슴 속에 잠자는 미녀를 품고 살며 여자는 백마 탄 왕자를 가슴에 품고 산다. 그리하여 남자가 가슴 속의 잠자는 미녀를 만나면 첫눈에 반하고 여자는 백마 탄 왕자를 만나면 첫눈에 반한다.”¹⁾ 짚은 남녀는 어려서부터 가슴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상적 이성상을 만들어 갖게 되고 그러한 이성상을 구현한 것으로 보이는 이성을 만나면 첫눈에 반하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첫 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성의 심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장하면서 이성의 사랑을 꿈꾸고 그러한 꿈 속에서 이상적 이성상을 갖게 된다. 그 이성상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 받고 싶은 욕망의 그림자, 그러한 욕망의 투영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성상을 놓고 사랑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첫눈에 반한 사랑이 근본적으로 나르시서스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 이성을 사랑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 속의 이성상을 상대에게 투영하고 그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1) Jose Ortega Y Gasset, *What Is Philosophy?*, Trans. Mildred Adams (New York, Norton & Company 1964), P.246.

사람을 꿈 속을 헤매는 사람으로 그리는 이유다. 낭만적 사랑의 회극에서 극의 진행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으로 성립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환상”(fancy)에 빠져 있던 애인들이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낭만적 사랑의 회극의 진행이다.

막이 열리면 사랑의 욕망에 도취한 Illyria의 공작 Orsino가 등장한다. 그는 “사랑의 혼”(the spirit of love, I.i.9)²⁾이 만들어 내는 환상이 생생하고 신선한데 놀란다. 사랑의 욕망은 기대와 좌절 사이에서 무수한 심상을 만들어내고 그는 사냥개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그러한 욕망에 쫓기고 있다. 여백작 Olivia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져 그 이후 그렇게 사랑의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Duke. Why, so I do, the nobest that I have.

O, when mine eyes did see Olivia first,

Methought she purg'd the air of pestilence!

That instant was I turn'd into a hart,

And my desires, like fell and cruel hounds,

Ere since pursue me. (I. i. 18-23)

그가 이렇게 사랑의 욕망에 괴로워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Olivia에게서는 사랑의 반응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만나주려고도 않는다. 그녀는 오빠가 죽은 것을 기화로 앞으로 7년 간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수녀처럼 집안에 침거하면서 하루 한번씩 눈물을 흘려 오빠의 사랑을 기리며 살기로 작정한다. Orsino는 사랑의 사자를 보내 자기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의 사자는 그녀가 외간 남자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올 뿐이다. 그리하여 Orsino는 Olivia에 대한 자신의 심상만 그리워하며 지내고, Olivia 역시 자기 오빠의 심상만을 기리며 지내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화는 사랑이 근본적으로 환상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자신들의 심상만을 기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남장한 Viola가 등장한다. Viola는 쌍동이 오빠인 Sebastian과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하면서 헤어졌다. 그녀는 다행히 한 선장(a sea captain)에게 구조되어 Illyria에 들어오게되었다. 그녀는 오빠와 외모가 똑같이 생겨 같은 옷만 입으면 그 둘을 아무도 구분할 수 없다. 외모상으로 그들은 서로 상대의 이미지가 되고 있다. 한 쪽의 얼굴을 보는 것은 다른 쪽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들은 나르시서스가 물 속의 이미지를 보듯이 서로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았다. 이러한 Viola가 Illyria에 등장하면서 오빠의 옷을 지어입는다. Sebastian의 옷을 지어입고 등장한 Viola는 외모상으로는 Sebastian이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이름을 Cesario라는 가명을 쓴다. 그리하여 Cesario는, 다시 말해 Cesario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Viola는 실체가 아닌 이미지가 된다. Cesario는 Viola의 이미지인 동시에 Sebastian의 이미지다. 이러한 Cesario가 Illyria 공국에 등장함으로써 그녀를 보는 Illyria 사람들은 허상인 이미지, Viola와 Sebastian의 이미지만을 보게 된다. Cesario가 Viola로 환생하지 않는 한 그들은 허상을 보면서 실재를 보고 있다는 착각, 환상 속에 살게 된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언급한대로 공작 Orsino와 여백

2) 본문 인용은 William Shakespeare, *The Complete Works*, edited by Irving Ribner and George L. Kittridge (Ginn and Company, Waltham, 1971)에 의거함.

장 Olivia는 자신들의 심상만을 보며 살고 있다. 허상인 Cesario의 등장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인 심상만을 보며 사는 그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Illyria 사람들은 이미지를 놓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Twelfth Night or What You Will*은 “이미지에 대한 소동”(Much Ado About Images)이라는 칭호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Viola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서 Orsino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구해준 선장에게서 Illyria의 공작이 Orsino라는 말을 듣고 그의 시동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Orsino는 남장한 그녀를 보고 즉시 호감을 갖기 시작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Olivia에 대한 자기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녀를 사랑의 사자로 보낸다. Cesario는 Viola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지를 보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이미 그는 Olivia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사랑의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Olivia에게 사랑을 받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은 그 자신의 가슴 속 이성상에게 사랑을 받치고 있었다. 그가 Viola의 이미지인 Cesario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그의 사랑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이미지이지 실체가 아닌 것이다. 어쨌든 Cesario로 변장한 Viola는 사랑의 사자로 Olivia를 만난다. 이미 Olivia 역시 오빠에 대한 심상을 사모하며 지내고 있다. 그녀 역시 자기 마음 속의 이미지만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에게 Sebastian의 이미지인 Cesario가 나타난다. 그녀는 Cesario를 보자 첫눈에 반해버린다. 그녀는 Cesario에게서 그녀가 가슴 속에 품고 살아온 “백마 탄 왕자상”을 본 것이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일화인 동시에 사랑이 환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다.

Oli.

Thy tongue, thy face, thy limbs, actions, and spirit!
 Do give thee fivefold blazon. Not too fast! Soft, soft!
 Unless the master were the man. How now?
 Even so quickly may one catch the plague?
 Methinks I feel this youth's perfections
 With an invisible and subtle stealth
 To creep in at mines. Well, let it be. (I, v, 271-277)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Olivia는 “운명”(Fate, I, v, 289)의 작용으로 돌린다. 이성이나 의지로 사랑을 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힘에 불가항력적으로 끌려 사랑에 빠진다고 말한다. 그녀는 Orsino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남자임을 알지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사랑할 수 없다고 Viola에게 고백한다.

Oli. Your lord knows my mind. I cannot love him.
 Yet I suppose him virtuous, I know him noble,
 Of great estate, of fresh and stainless youth:
 In voices well divulg'd, free, learn'd, and valiant,
 And in dimension and the shape of nature
 A gracious person. But yet I cannot love him. (I, v, 236-241)

이렇게 이치를 이성적으로 따지면 Orsino는 Cesario에 비해 월등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Cesario는 근본도 모르는 그의 시동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은 현실적인 이해나 이치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Orsino의 사랑을 마다하고 근본도 모르는 그의 시동에 불과한 Cesario를 사랑하는 Olivia를 미쳤다고 부를 것이다. Olivia 자신도 그러한 모순을 알고 있다. 그녀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다. 숙명적으로 정해진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녀는 다만 “눈의 아첨”, 눈의 아부에 자신의 정신이 흘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뿐이다. 시각을 통해 일어나는 환상에 불가항력적으로 끌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시각을 통해 반하는 비이성적이고 환상적인 사랑은 나르시서스의 자기 사랑이 변함 없는 원형이다. 남자인 Orsino의 사랑은 그러한 나르시서스의 사랑과 흡사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어 자기 자신의 마음 속 이미지만을 놓고 사랑하고 있다. 그는 반응이 없는 그녀의 제단에 제물을 받치며 살고 있다.

Duke. You uncivil lady,

To whose ingrate and unauspicious altars
My soul the faithfulest offr' ings hath breath'd out
That e' er devotion tender'd d!(V,i, 107-110)

그리고 그는 사랑의 “제단”에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변함없는 이미지”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린다.

Duke.

For such as I am all true lovers are,
Unstaid and skittish in all motions else
Save in the constant image of the creature
That is lov'd.(II,iv, 14-19)

나르시서스가 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지만 반응이 없어 괴로워하듯이 Orsino는 자기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이미지를 사랑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그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미지는 나르시서스의 이미지처럼 반응이 없다. 그 이미지는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 자신의 욕망이 그려낸 이미지인 것이다. 다만 그는 그 이미지를 Olivia 자신의 이미지라고 믿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사랑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그 욕망의 그림자다. 이 Orsino를 사랑하는 것은 Viola다. Viola는 남장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을 말할 수 없다. 그녀는 단지 그의 사랑의 말을 전달하는 일만을 하고 있다. 즉 그녀는 그의 말을 반향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Orsino의 말만을 반향해야하는 Viola의 처지는 Echo의 처지와 비슷하다. 자기 밖에 사랑하지 않는 나르시서스를 사랑한 Echo는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말을 반향만을 했는데 Viola 역시 Orsino의 시동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말을 반향하며 지낸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자기 언니의 사랑에 빗대어 말하지만 Orsino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Vio.

My father had a daughter lov'd a man
As it might be perhaps, were I a woman

I should your lordship.

Duke. And what's her history?

Vio. A blank, my lord. She never told her love,

But let concealment, like a worm i' th' bud,

Feed on her damask cheek. She pin'd in thought;

And, with a green and yellow melancholy,

She sat like Patience on a monument,

Smiling at grief. (II, iv, 105-13)

위에서 Viola는 자신의 사랑을 Echo의 사랑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열렬히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고 마음 속으로만 괴로워하며 Echo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미지로 존재하는 Viola로서 자기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극의 논리상 당연한 면이 있다. 자신의 이미지며 오빠의 이미지로서 그녀는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없다. 이미지는 말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 이미지는 실체의 움직임을 반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은 이미지를 보고 있는 한 그 실체를 볼 수 없다. 거울 속을 들여다 보고 있는 한 그 속에 비친 이미지만 볼 수 있을 뿐 그 실체를 볼 수 없다. 실체를 보려면 이미지에서 눈을 돌려 실체를 바라보아야한다. Orsino가 Olivia를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사랑의 이미지만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는 Olivia라는 실체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익스피어는 그가 Olivia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빗대어 암시한 것이다. Olivia도 Sebastian의 이미지인 남장한 Viola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녀의 사랑 역시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을 뿐임을 암시한다. 그녀도 그 이미지만 보고 있는 한 실체인 Sebastian을 볼 수 없다. 나르시서스처럼 이미지만 보며 사랑의 소동을 벌이는 이들에게 그 이미지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동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의 혼란을 해소시켜주기라도 하려는 듯 Sebastian이 Illyria에 등장한다. 이미지만 보던 Illyria 사람들에게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극의 은유에 비추어 실체를 보는 것은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제일 먼저 Sebastian을 보는 사람은 Olivia다. 자연히 그녀는 그를 Cesario로 오인하게 되고 열렬히 구애한다. Sebastian의 옷을 지어입은 Viola는 외모상으로는 Sebastian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구혼을 하고 마침내 결혼식까지 올린다. 그녀가 이미지와 실체를 결합하게 된 것을 그녀의 결혼이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미지와 실체를 분리시켜 이미지만 보던 그녀가 그 둘을 “결합”하여 Sebastian이라는 실제 인물을 인식했듯이 그녀는 사랑의 이미지만 쫓다가 그 실체를 만나 그 둘을 “결합”함으로써 환상적이 사랑을 실제적인 사랑으로 바꾼 것이다. 환상적인 결합을 실제적인 결합으로 바꾼 것을 축하하는 의식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사람은 이미지를 매체로하여 사물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어떤 존재의 형상을 인식하려면 그것의 시각적 이미지와 실체를 결합, 즉 동일시해야 한다.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매체로 하여 그 이미지를 내 얼굴과 동일시해야한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Ortega Y Gasset의 말대로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심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상적

이성장을 매개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식한다. 사람은 어떤 이성에게 그러한 이미지를 투영할 때 그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남장한 Viola는 Sebastian의 이미지로서 오빠와 Olivia의 사랑의 매개자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이미지로서 Orsino의 사랑의 매개자가 된다. Orsino는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한 “잠자는 미녀”를 사랑하면서 Olivia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랑을 Viola에게 고백했다. 그는 Olivia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의 “잠자는 미녀상”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미녀상을 Viola이 이미지, 즉 Cesario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미녀상”에게 받치는 사랑의 고백을 Cesario에게 하기를 즐긴 것은 Viola의 이미지를 좋아한 때문이다. 그가 Cesario를 보자마자 총애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라든지 Cesario에게 자신의 속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은 것들은 Viola의 이미지를 특별히 좋아한 때문이다. 그가 Olivia와 Sebastian이, 다시 말해 Olivia와 Cesario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Cesario에 대해 격렬한 질투를 느끼는 것도 그가 Viola의 이미지를 자기도 모르게 사랑한 것을 암시한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극의 대단원에서 그가 “다행한 난파”(this most happy wreck, V.i, 257)에 동참하기로 하고 Viola에게 구혼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가 가슴 속에 모시고 사모하던 미녀상을 Olivia에게서 찾았지만 실제로는 Viola의 이미지, 즉 Cesario의 외모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극의 대단원에서 사람들은 남장한 Viola와 Sebastian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Orsino가 그러한 놀라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Duke. One face, one voice, one habit, and two persons!

A natural perspective, that is and is not!(V.i, 207-208)

외모가 똑같이 생긴 이를 쌍동이 남매는 극의 메타포로 말하면 위에서 논한 것처럼 서로 상대방에 대해 거울의 이미지다. 거울의 이미지는 실제로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은 그 그림자의 실체, 즉 그 그림자를 던지는 실제 사람을 보지 못한다. 반대로 실체를 보고 있으면 그 그림자를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그 자신의 그림자인 동시에 오빠의 그림자가 되어 있던 남장한 Viola만 보던 Illyria 사람들로서는 Sebastian의 등장으로 실체를 보게 되었다. 허상을 보며 살던 그들이 이제 실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허상인 이미지를 보지 않고는 실체를 보지 못한다.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만 실체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렇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보도록 태어났다. 이것이 사람의 “타고난 시각”(a natural perspective)이다. 이러한 사람의 시각은 사람의 인식 방식의 상징이다. 사람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매개로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러한 환상적 이미지를 이데오로기, 관습, 문화등으로 부른다.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며 이데오로기가 다르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갖고 사회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Illyria는 가부장적인 신분사회다. 사회적 신분은 그 사람의 인간성까지 결정한다. 귀한 신분의 사람은 인간성까지 귀한 사람이고 천한 신분의 사람은 천한 인간, 인간성까지 천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인간관, 즉 인간에 대한 환상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매개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식한다. 이러한 사회 이데오로기를 깨는 힘을 사랑은 갖고

있다. Olivia는 공작인 Orsino의 사랑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Orsino는 신분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Illyria에서는 인간적으로도 가장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러한 Orsino의 사랑을 거절하던 Olivia가 그의 시동에 불과한 Cesario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감정에 놀라면서 Cesario의 “혈통”(parentage, I, v, 256)을 묻는다. 신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첫눈에 반했지만 신분이 천하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처지와 달리 나는 “귀족 출신”(a gentleman, 258)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안심한다. 그녀는 Sebastian을 Cesario로 오인하고 그와 결혼했다. 그녀가 그에게 끌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녀는 Cesario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당황하고 있다. 근본도 모르면서 Sebastian과 결혼한 것을 알고 그녀는 낭패에 빠진 것이다. Orsino가 Sebastian의 사회적 출신을 설명해주어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는 그가 귀한 집 출신임을 알려준다.

Duke. Be not amaz'd: right noble is his blood.

If this be so, as yet the glass seems true.

I shall have share in this most happy wrack. (V.i, 255-257)

Orsino와 Olivia의 로맨스는 Viola와 Sebastian의 “난파”의 결과로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다. 쌍둥이의 난파는 극의 메타포어로 말하면 이미지와 실체의 분리를 의미한다. 물은 거울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이 자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었다. 남의 얼굴만 보며 살던 인간이 물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커울 것인가는 나르시서스의 신화가 잘 말해준다. 그것은 자기를 보는 첫 순간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Tiresias의 말대로 “자기를 아는” 첫 순간을 기록하는 경이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또한 물에 빠져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가 부활하는 경험을 상징한다. 나르시서스는 물에 빠져 죽었지만 Twelfth Night의 주인공들은 새로이 자아를 깨닫고 성인으로 부활하여 결혼한다.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성인이 된 것을 의미한다. 자기 얼굴의 이미지를 보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알 수 없듯이 자아의 심상을 알기 전에는 자아를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를 아는 것은 내가 나의 자화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러한 자화상을 알 때 사람은 비로소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사람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결혼식은 바로 그러한 성인 의식이다. 사람은 나르시서스처럼 자기만 사랑하면 사회인이 될 수 없다. 남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사회인이 되는 것이고, 남녀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회인이 되는 첫 관문이다. 물론 친구를 사귀고 사랑함으로써 사람은 사회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남녀의 사랑과 결혼은 인류의 존속을 보장하는 타고난 인간 본능의 사회적 형식이다. 인간의 일차적인 사회적 책임이 이성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남녀의 사랑과 결혼이다.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은 물 속에 빠져 죽었다 부활하는 경험을 거치게 된다. 나르시서스 같은 자기애를 죽이지 않고는 성인으로 거듭 나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세익스피어는 그의 낭만 희극에서 기본 주제로 다루었다.

Ⅱ

이상에서 보았듯이 Twelfth Night의 주구성에서는 주인공들이 이성의 시작적 이미지에

반한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그들 자신의 사랑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투영이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형상 자체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사람받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욕망은 순수하고 감각적이다. 현실적 이해타산을 벗어난 욕망으로서 낭만적 사랑이다. 첫눈에 반하는 이러한 낭만적 사랑과 대조적으로 이해타산에 따라 사랑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기적 이득에 눈독을 드려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이나 신분 상승등을 노리는 소위 정략적 사랑을 할 수 있다. *Twelfth Night*의 부구성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략적 사랑을 테마로 극이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그 동기는 나르시서스적인 자기애다. 자기가 가장 훌륭한 인물(the best persuad'd of himself)이라는 자화상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과 결혼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꿈을 쫓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기를 높이 평가하여 자기를 좋아한다는 망상에 탐닉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식의 자기애에 빠지는 인물을 부구성에서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부구성에는 귀족 계층에 속하는 Toby와 Auguecheek라는 두 기사(knight)가 등장한다. 이들은 기사다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Auguecheek는 연간 3,000 듀카트의 수입이 있지만 기사로서 칼을 쓸줄 모르며 지적으로도 바보에 가깝다. 셰익스피어는 희극에서 귀족 출신의 인물로 희극적 놀림감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는 예외적으로 그런 놀림감이 되고 있다. 돈으로 기사 작위를 산 인물이라는 암시를 주는 인물이다. Toby는 여백작 Olivia의 가까운 인척으로 그녀의 조문객이다. 그러나 그는 조문객의 도리를 무시하고 주연이나 열며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있다. 바보스런 Auguecheek에게서 돈을 물거내 주연을 열면서 집안의 어른으로 행세한다. 그는 주로 Olivia의 하인인 Fabian, Feste, 그리고 그녀의 시녀 Maria 등과 어울려 지낸다. 이들과 대조되는 인물이 Olivia의 집사(steward)인 Malvolio다. Malvolio는 하인 계층에 속하지만 다른 하인들과 어울려 지내려고 하지 않으며 귀족 신분인 Toby와 Auguecheek의 행동을 비판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는 청교도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기가 가장 잘난 인물(the best persuad'd of himself)이라는 생각에서 “자기애의 병”(sick of self-love)에 걸린 인물이다. 나르시서스처럼 자기만을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외를 그는 오히려 자신의 우월을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Malvolio의 나르시서스적인 자기애는 주구성의 Orsino나 Olivia의 첫 눈에 반한 사랑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첫 눈에 반한 사랑은 상대방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쫓는다. 이러한 환상은 자기 자신도 상대방과 같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나르시서스적인 자기애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Orsino는 자기가 가장 고귀한 남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며 Olivia도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이들은 사랑을 받침으로써 상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이 Malvolio의 자기애와 다르다. Malvolio는 자기만 잘랐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남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한다. 그는 남을 사랑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쪽이 자기애를 추구하지만 한쪽은 소아병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쪽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정상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주고 받는 관계 위에서만 정상적 관계가 성립한다. 일방통행적인 관계는 반사회적인 관계다. 나르시서스적

인 Malvolio의 자기애는 반사회적인 사랑으로서 결국 파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부구성에서 Malvolio의 자기애가 어떻게 반사회적이며 어떻게 파탄에 이르는가가 희극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희극의 주인공은 남을 속이는 인물인데, 여기서는 속아넘어가는 Malvolio가 주인공이 되어 있다. 그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남이 그의 그림자를 만들어 보이면 그 그림자에 따라 행동하여 놀림감이 된다.

Malvolio의 과대망상증을 누구보다 깨뚫어 보는 Maria가 그의 마음의 그림자를 가짜 편지를 써서 그가 지나는 길에 떨어뜨려 놓는다. 그는 Maria가 Olivia의 필체를 흉내내어 쓴 편지를 받아보고 Olivia의 필체라고 홍분한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줄 것을 간청하면서 숭배하는 사람 앞에서 명령하는(I may command where I adore, II, v. 97) 입장에 있는 사람이 쓰고 있다는 글을 읽는다. 그는 자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Olivia임으로 Olivia가 쓴 편지라고 단정한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읽는다.

“If this fall into thy hand, revolve. In my stars I am above
thee: but be not afraid of greatness. Some are born great,
some have greatness thrust upon 'em. Fates open their hands:
let thy blood and spirit embrace them: and to inure thyself to
what thou art like to be, cast thy humble slough and appear
fresh. Be opposite with a kinsman, surly with servants. Let thy
tongue tang arguments of state: put thyself into the trick of
singularity.” (II, 5, 131-136)

위의 편지 내용은 Malvolio가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과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홀륭하다는 자화상에 따라 Olivia의 사랑을 받아 결혼하여 백작이 되어 있는 망상을 즐겨온 터였다. 자기는 능력면에서나 덕성면에서나 외모에 있어서나 출중하기 때문에 “운”(fortune, II, v. 21)만 좋으면 Olivia와 결혼하여 백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극장의 의상 담당자가 귀부인과 결혼한 일을 예로 들면서 자기도 운만 좋으면 Olivia와 결혼하여 백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Toby가 자기 부름을 받고 나타나 절을 하면 그에게 술을 끊으라고 명령하는 장면도 상상한다. 이렇게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Look, how imagination blows him, II, v. 39) 그는 Maria가 쓴 편지에 쉽게 속아 넘어가 편지에 써있는대로 행동한다. 그가 평소에 품고 있던 자화상, 그의 욕망이 만들어 낸 자아 이미지에 부합하는 편지 내용을 읽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Toby의 말대로 그가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날에는 미쳐버리고 말 정도로 자기 도취에 빠져 행동한다.

그는 편지에 써있는대로 노란 양말을 신고 댅님을 뒤로 매고 Olivia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노인들이나 하는 풍습이다. 그는 또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하인의 신분으로서 불경스런 행동이다. 그리고 그는 편지 내용을 Olivia에게 들려주며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Olivia는 이러한 Malvolio의 괴상한 태도를 보고 “한 여름의 광기”(missummer madness, III, iv, 51)라고 개탄한다. 그녀는 Toby를 불러와 그를 특별히 돌봐주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그러자 그는 Olivia가 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좋아한다. 이렇게 과대망상증에 빠진 Malvolio는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다. Toby가 주동이 되어 그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어두운 방에 감금시킨다. 그는 부당

하게 감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같은 어두운 방은 망상에 빠진 그의 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망상만을 보는 그는 망상의 어두운 방에 감금당한 꼴이다. 그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한 그는 어두운 방 속에 갈혀 혼자 잘난 체하며 지내는 바보일 뿐이다. 그가 극의 대단원에서 풀려나오지만 여전히 그는 과대망상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Maria가 쓴 편지를 Olivia가 쓴 편지로 믿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Olivia에게 왜 그런 편지를 자기에게 써보냈느냐고 따진다. 결국 그 편지가 Maria가 쓴 편지며 그가 방에 갇혀있을 때 자기를 찾아온 사제 Sir Topas가 사실은 광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Toby, Fabian, Maria가 짜고 그를 골탕먹인 사실, 편지를 써서 그를 골탕먹인 대가로 Maria가 Toby와 결혼한 사실도 알게 된다. 그는 격분하여 “모두 복수하겠다”(I'll be reveng'd on the whole pack of you!, V.i, 365)고 선언하고 나가 버린다. 이 상황에서도 그는 그의 독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가 비현실적인 자아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 그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rsino가 그를 달래줄 것을 명하는 것으로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현실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만 줄 뿐이다.

III

*Twelfth Night*에서 나르시서스적인 사랑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인물들인 Orsino 공작, Olivia 여백작, 그리고 Malvolio등은 자기들의 환상을 쫓다가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Orsino는 자기 사랑의 이미지를 Olivia에게 투영하고 그녀가 자신의 사랑의 화신이라고 믿으며 그녀에게 사랑을 바쳤지만 결국 그의 사랑의 이미지는 그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배척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그녀가 그의 시동으로 일하던 Cesario와 결혼한 사실에 모욕을 당한다. Olivia 역시 Cesario를 보고 자신의 사랑의 이미지를 그에게 투영하고 사랑하지만 그는 Viola가 변장한 것으로 판명된다. 그녀도 자기 자신의 가슴 속 이미지를 쫓으면서 Cesario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결국 그녀는 Sebastian을 만나 Cesario의 실체를 찾게 되어 결혼한다. 그러나 그녀 역시 Cesario라는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법석을 떤 것이 판명되어 모욕을 당한다. Malvolio는 과대망상적인 자화상에 따라 Olivia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환상에 빠져 사회의 놀림감이 된다. 이와같이 이들 세 주인공들이 모두 자신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이미지를 쫓다가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Orsino와 Olivia는 그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어 화합의 대축제의 주인공이 된다. 이에 반하여 Malvolio는 비현실적이고 반사회적인 자화상을 쫓다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적 웃으개거리가 된다. 결국 세 인물이 모두 자기들 가슴 속의 이미지를 실제라고 착각한 결과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한 이미지를 통하지 않고는 그들은 애인을 인식할 수 없다. 그들이 애인상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애인을 찾을 수 있다. Malvolio도 자신이 가장 잘 났다는 자화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화상에 어울리는 여백작을 애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Malvolio는 비현실적 망상에 빠져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여 모욕을 당하고 파탄을 맞지만 애인의 이미지를 Olivia에게 투영하고 사랑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는 Orsino나 Olivia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회적 제도와 그 제도에 따른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Malvolio의 환상적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망상이지만 그도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되어 Olivia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가 허상이지만 이미지를 매체로 삼지 않고는 사람은 실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인간 의식의 문제를 극의 테마로 삼고 셰익스피어가 *Twelfth Night*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Twelfth Night*는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 인식하는 인간의 인식방식과 행동방식을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